

# 3연패 도전 정종진, 조호성 소환?

(경륜 레전드)

올 시즌 승률 1위·대상경주 2회 우승 '전설' 조호성의 그랑프리 3연패 도전 성낙송·정하늘·신은섭 등과 우승경쟁

2018시즌 왕좌의 게임 승자는 누구일까. 올시즌 경륜 최강자를 가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그랑프리 경륜이 28일부터 30일까지 광명 스피드에서 열린다. 그랑프리 경륜은 우승상금 7000만원을 비롯해 총 2억6200만원의 상금이 걸린 경륜 최고 권위의 대회이다. 올 1월부터 11월까지 평균득점(50점), 승률(50%), 대상경주 입상가점(35점)을 합산해 상위 7명이 특선 경주에 출전한다. 올 시즌 그랑프리포인트 1위인 정종진을 비롯해 신은섭, 정하늘, 황인혁, 성낙송, 이현구, 윤민우가 경쟁한다. 이들은 30일 18경주 결승전에 출전해 올 시즌 최고 선수를 향한 한판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 ●정종진, 그랑프리 경륜 3연패 정조준

우승 0순위 후보는 역시 정종진(20기, SS등급)이다. 정종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륜 최강자로 그랑프리 경륜 3연패에 도전한다. 지금까지 그랑프리 경륜 3연패는 '경륜 레전드' 조호성(2005~2007년)이 유일하다. 이미 50연승으로 조호성의 47연승 기록을 경신한 정종진은 다시 한번 대기록 작성에 나선다.

정종진은 큰 경기에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올해 대상경주에서 우승 2회와 3위 1회를 차지했다. 올 시즌(12월18일 기준) 종합득점은 물론 승률에서도 1위를 달리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 역량 못지않게 얼마만큼 자신의 세력을 적절히 활용하느냐도 관건이다. 이번 그랑프리 경륜에는 수도권 선수가 3명(정종진, 신은섭, 정하늘), 경남



성낙송 정하늘 신은섭

권 선수가 3명(성낙송, 이현구, 윤민우) 출전한다. 수도권에 협공 세력인 신은섭(18기, SS등급), 정하늘(21기, S1등급)이 든든히 양 옆을 받치고, 박병하(13기, S1등급)의 빈자리를 동갑내기 친구인 황인혁(21기, SS등급)이 대신한다면 정종진의 그랑프리 3연패를 향한 외견상 조건은 좋은 편이다.

하지만 경상권 이현구(16기, S1등급)의 초반 선공이나 윤민우(20기, SS등급)의 공간 침투, 성낙송(21기, SS등급)이 자랑하는 막판 결점력이 발휘된다면 승패는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이들 경상권 3인방은 모두 2018시즌에서 정종진을 꺾은 전력이 있다.

### ●정종진의 대항마는 누구?

정종진은 올 시즌도 랭킹 1위를 지키고 있으나, 승률이 지난해 97%에서 올해 88%로 많이 떨어졌다. 특히 최근 다섯 경주에서 두 차례나 우승을 놓쳤고, 이중 한 번은 태만 실격까지 받았다. 이런 정종진을 부담스럽게 할 저격수로는 성낙송이 꼽힌다. 막판 추입력이 정종진에 버금가는데다 48회차 결승 경주(12월9일 일요일 14경주)에서 한바퀴 선행에 나선 정종진을 가볍게 추입으로 따돌리며 우승했다. 물론 당시 정종진이 선행으로 많은 힘을 소모했기에 가능했지만 정종진의 13연승을 저지할 정도로 막

판 결점력이 절정에 다다랐다는 평가다. 정종진에게는 가장 곱고러운 상대일 수밖에 없다.

90년생 정하늘 역시 상반기 2018 국민체육진흥공단 단이사장배 대상경륜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정종진을 이긴 경력이 있다. 지금까지 이사장배 대상경륜과 그랑프리 우승을 동시에 차지한 선수는 2016년 정종진이 유일하다. 정하늘은 선형일변도 전법에서 탈피해 전법의 다양화에 성공했고, 순위에 대한 욕심도 상당하다.

그랑프리포인트 2위를 차지한 신은섭과 관록의 이현구, 벨로드롬의 라이징 스타로 꼽히는 윤민우 역시 한 방을 기대할 수 있어 눈여겨봐야 한다. 현재 다승 2위(41승)인 황인혁은 모든 전법을 구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대상경륜에서 2·3위 기록은 있으나 아직 우승이 없어 이번 그랑프리 경륜을 잔뜩 노리고 있다.

그랑프리 특선경주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사실상 기량 차이가 크지 않은 강자들인 만큼 당일 컨디션에 따라 누구든 우승 기회를 엿볼 수 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강남지점 직원들이 경륜경정 건전화 우수성과 대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륜경정 서울 강남지점 건전화 최고지점에 선정

경륜경정 서울 강남지점이 2018년 건전화 최고 지점으로 선정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14일 경륜경정 본장 및 장외지점이 참가한 건전화 우수성과 종합평가 심사결과에 따라 서울 강남지점에 대상을 수여했다.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사업의 건전성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해 향후 건전화 우수성과 선정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 강남지점은 경륜경정이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나아가도록 다양한 노력을 실시했다. 구매상한액 준수를 위해 투표소 및 운인 발매기 주변에 계도요원을 배치했으며, 현수막 및 각종 유인물 등을 통해 건전한 경주권 구매 문화와 관람문화를 조성했다. 또한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내 소외계층 지원과 환경캠페인,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함께하고 문화교실 운영 등으로 관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경륜경정사업본부 서울 강남지점 이기환 지점장은 "앞으로도 경륜경정 사업을 건전화로 인식하기 위한 차별화된 홍보마케팅을 펼쳐 나가겠다. 또한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상생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용운 기자

### 광명 스피드서 어린이 체험교실 진행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어린이 체험교실을 광명 스피드물 2층 가족북카페 체험학습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일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실시한다. 12월에는 연말과 송년을 주제로 한 12월 '해피 윈터스피드'이라는 콘셉트로 천연 가슴기 만들기, 산타 모자 접기, 행운의 깃털 만들기, 루돌프 클레이 자석 만들기,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등을 시간대별로 30분씩 진행한다. 참여 희망자는 사전신청해야 한다.

정용운 기자

### 25~27일 크리스마스 맞이 특별경정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25일부터 27일까지 크리스마스 맞이 특별경정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경정이 열리는 3일간은 동절기 기상상황에 따른 수면상태 및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16경주 모두 플라잉스타트, 2주회(1200m) 경주방식으로 운영한다. 한편 2019년도 경정은 1월 2일부터 개경해 17일까지 3주간 경주를 시행하고 이후 수면 상황에 따라 3~4주간 휴장기를 가질 예정이다.

정용운 기자

▶정종진이 경륜 최강자를 가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그랑프리 경륜 3연패에 도전한다. 올 시즌에도 종합득점과 승률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우승 후보 0순위로 꼽힌다. 사진제공 | 경륜경정사업본부



이응석 이태희 김용선 심상철 최광성

## 1~10위 2900만원차...상금왕, 그랑프리 경정에 달렸다

이응석 1위 1억1544만원 1위 이태희·김용선·심상철 등 뒤이어

미사리 경정장에서는 시즌 막바지 타이틀 경쟁이 한창이다. 특히 상금왕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상금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격차가 2900만원이 안될 정도로 좁은 차이가 가능한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그랑프리 대상경주 결과에 따라 상금 순위도 요동칠 전망이다. 우승상금 3000만원을 비롯해 총 9000만원의 상금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19~20일 진행되는 그랑프리 대상경주 우승자는 최고의 명예와 상금왕까지 차지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현재(12월18일 기준) 상금순위 1위는 이응석(1기, A1, 48세)이다. 경정선수 중 가장 많은 130회 출전에 1억1544만 65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일반경주에서 1차 26회, 2차 34회, 3차 26회 등 고른 성적에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랑프리 대상경주에 출전하지 못해 선두자리를 내줘야 할 형편이다.

2위는 우승상금 1억1185만3000원인 이태희(1기, A1, 48세)다. 92회 출전해 스포츠월드배 3위 입상과 일반경주 1차 27회, 2차 26회, 3차 21회를 기록하고 있다. 그 뒤를 김용선(11기, A1, 34세)이 1억1185만3000원으로 추격하고 있다. 올 시즌 기량이 만개하며 스포츠월드배 우승과 일반경주 1차 41회, 2차 15회, 3차 11회

를 이뤘다.

최강 전력으로 평가받는 심상철(7기, A1, 37세)이 스포츠경향배 우승과 일반경주 1차 36회, 2차 20회, 3차 7회를 기록하며 우승상금 1억45만8000원으로 바짝 쫓고 있다. 생애 첫 우승상금 1억원 돌파를 눈앞에 둔 최광성(2기, A1, 45세)은 9991만 3000원으로 5위. 그랑프리 대상경주 티켓을 확보해 무난하게 역대 상금자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여자선수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이주영(3기, A1, 37세)은 83회 출전해 스포츠경향배 3위 입상과 일반경주 1차 25회, 2차 22회, 3차 17회를 기록하며 우승상금 9541만4500원으로 6위다. 김인혜(12기, A1, 29세)도 쿠라하라배 준우승과 일반경주

1차 24회, 2차 19회, 3차 13회로 개인 하이런 기록과 함께 1억129만7500원으로 8위에 올라있다. 12기 동기생 중 가장 먼저 상금 1억원 돌파가 기대된다. 우승상금 8890만6000원으로 9위인 김현철(2기, A1, 50세)도 그랑프리 대상경주에서 우승한다면 단숨에 상위권을 바라볼 수 있다.

한편 다승왕 경쟁은 2파전 양상이다. 41승으로 선두인 김용선이 생애 첫 다승왕 타이틀에 도전하고 있다. 36승인 심상철은 3연속 다승왕 타이틀 신기록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막판 경합 중이다. 시즌 2회 차를 남겨 둔 시점에서 두 선수의 출전 여부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5승 앞선 김용선이 유력하다.

정용운 기자